

2018-1학기 스위스 ETH 교환학생 후기

전기정보공학부 윤종훈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스위스 취리히 ETH 교환학생으로서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본부와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총동문회에 감사 표를 포함합니다. 교환학생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며 좋았던 것들,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후기를 적어보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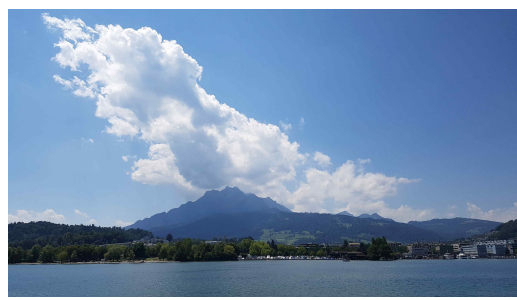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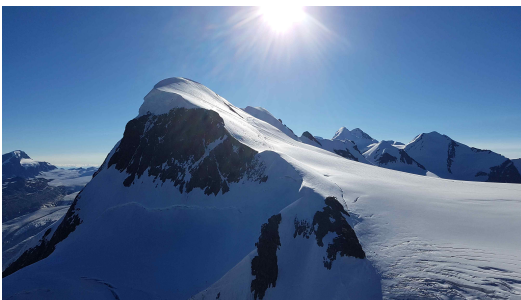
자유로운 학풍, 그리고 풍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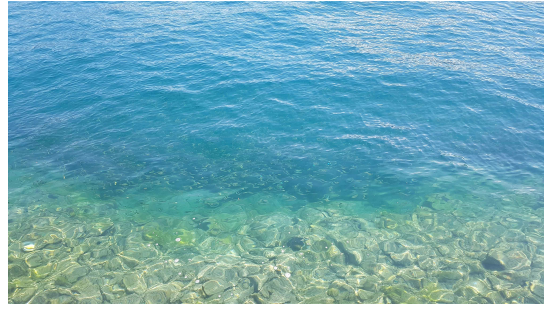
여기서 공부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출석이 없고 의무였던 것은 기말고사 뿐이었습니다. 과제나 실험 참여는 보너스 점수로 인정되어, 학생이 자신만 있다면 기말고사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업 시간대가 겹쳐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책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출석과 다량의 과제 속에서 공부해왔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지원도 풍성합니다. 'Embedded System'이라는 실험이 병행되는 과목에서 이러한 점을 제일 잘 느꼈었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대형 강의였지만, 실험 기자재인 msp432 런치패드를 조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나씩 한 학기동안 대여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보드를 이용하여 여러 개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실험 교재 또한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정확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제작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대자연, 풍성한 학생 혜택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손에 꼽히는 국가입니다. 녹지와 설산의 조화로운 풍경, 산에 둘러싸인 맑고 빛나는 호수 등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워낙 물가가 비싼 국가이기에 기차값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취리히에서 유명 여행지를 다녀올 때 정가를 주고 다닌다면 주변 국가 왕복 항공비보다 비싼 돈을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람들은 모든 티켓을 반값으로 살 수 있는 half-fare travel card를 구매합니다. 여기에 더해 만25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Gleis 7이란 할인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밤7시 이후 모든 국영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로 교환학생을 오면 왕복 기준으로 정가의 1/4가격으로 스위스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학업에 매진하여 지칠 때마다, 아름다운 스위스 자연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넓어지는 시야

제가 살던 건물은 meierwiesenstrasse 62로, 모든 층의 사람들이 로비의 부엌을 공유하던 구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비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되고, 어학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야외에서 그리울 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육과 김치, 그리고 삼겹살 등 한국 음식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베풀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 취리히

이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통계 방식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기는 하지만 생활비가 비싼 정도로는 취리히는 1위에 자주 선정되는 도시입니다. 최저시급이 25프랑, 한화로는 약 3만원 정도 되는 곳입니다. 기숙사와 교통은 학생 배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

할 수 있지만, 외식 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맛있고 배부른 수준에서 먹으려면 한 명당 3만원은 내야합니다. 학생 식당 이용비는 최저가가 7천원 정도였습니다.

학생 식당 이용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주로 요리를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식재료도 비쌉니다. 주변 국가들보다 가축 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고기 가격은 주변 국가의 두 배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기 값도 비싼지라 국산 기준으로 고기값이 비슷하긴 했습니다. 때문에 고기 소비가 많은 학생들은 독일 국경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보러 갑니다. 편도 한 시간 정도 걸리며 스위스의 절반 이하 가격에 식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출되는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정착할 때 이런 저런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의무로 들어야하는 보험 비용 또한 꽤나 큼니다. 어쨌든 지출을 줄여가며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5월, 시험은 8월

1학기 기준으로 ETH는 수업이 5월 말에 끝나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시험을 8월에 봅니다. 기말고사 시기는 session exam과 semester exam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8월에 시험을 보는 것이고 후자는 수업 종료와 동시에 5월 말쯤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의 기말고사가 session exam입니다.

6, 7월에는 정말 아무 일정이 없기에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다른 교환학생들보다 훨씬 귀국이 늦기에 지치는 느낌이 있었고, 시험이 끝난 후의 자유 시간이 아니기에 균형 있는 생활을 보내느라 고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맞는 휴식과 학업의 균형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에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ETH, 취리히 그리고 스위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고생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것도 많아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나위 없는 만족스런 ETH에서의 교환학생이었습니다.